

朱丹溪의 相火論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火에 대한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¹

윤영흠¹ · 윤창열¹ *

A Study of Fire(火) Prior to the Emergence of the Theory of Ministerial Fire(相火論) of JuDan-Gae(朱丹溪)

Yoon Young-Heum¹ · Yun Chang-Yeol¹ *

¹Dept. of Korean Medicine & Medical History, Daejeon University

Objective : The writer has come to see that a study of the Theory of Ministerial Fire of JuDanGae presupposes a study of earlier theories of fire. Therefore, I have analyzed and studied the theories of fire presented by medical doctors since 『Nae Gyeong(黃帝內經)』

Method : To begin with, I have studied the concepts of grand fire(壯火) and small fire(少火), imperial fire(君火) and ministerial fire(相火) in 『Nae Gyeong』, and have construed the meaning of human fire(人火) and dragon fire(龍火) by Wang Bing(王冰), and fatty fire(膏火) by Sohn Sa-mak(孫思邈). Next, I have studied true fire(眞火) by Huh Sook-mi(許叔微) and true yang(眞陽) and pit fire(坎火) by Eom Yong-hwa(嚴用和), Theory on Right Kidney as the Gate of Life and Ministerial Fire(右腎命門相火說) by Yu Wan-so(劉完素), and the reason why Jang Wan-so(張元素) asserted Theory of Three Burners as Ministerial Fire(三焦相火說).

Result : I have understood the influence that the concepts of grand fire and small fire, imperial fire and ministerial fire in 『Nae Gyeong』 have exercised on the later medical doctors, and have also understood the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Fire that influences the human body. Moreover, I have seen that Fire, as discussed by scholars from Huh Sook-mi and Eom Yong-hwa to Yu Wan-so and Jang Wan-so, made great contribution to the later development of Theory of the Gate of Life, getting its entire picture in Eum Hwa.

Conclusion : Seeing that the theories of Fire presented by medical doctors since 『Nae Gyeong』 and prior to JuDan-Gae had great influence on the later development of Theory of the Gate of Life, I have come to understand that along with Eum Hwa by Lee Dong-wan, they must precede a study of the Theory of Ministerial Fire of JuDan-Gae.

Key Words : grand fire(壯火), small fire(少火), ministerial fire(相火), true fire(眞火), the gate of life(命門), Eum Hwa(陰火), human fire(人火), dragon fire(龍火)

I. 서론

朱丹溪는 金元四大家의 마지막 인물로 그 이전 劉完素, 李東垣, 張子和의 學說을 종합하여 臨床에 활용 하였을 뿐만 아니라 相火論, 陽有餘陰不足論 등의 論說을 발표하여 『內經』 이후 의학이론을 정리한 대표적 인물이다. 火는 『內經』에서 五行의 하나로 火行에 속하고, 또 물질이 燃燒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陽氣, 溫熱한 약물의 성질, 열, 그리고 運氣에 있어서 火運之氣, 少陰君火, 少陽相火 등의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¹⁾. 후대로 내려오면서 火는 인체의 生理와 病理病機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內經』에서 나온 ‘壯火, 少火’, ‘君火, 相火’의 이론을 계승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와 이론이 출현하였다. 저자는 朱丹溪의 相火論을 연구하면서 이전까지의 火에 대한 이론에 대한 研究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전모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朱丹溪의 相火論은 이전 醫家들 특히 金元시대 醫家들의 火에 대한 이론을 집대성한 인물로, 후세 의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朱丹溪의 相火論에 대한 논문을 내기에 앞서 이전까지 火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게 되었다. 먼저 『內經』에 나타난 壯火, 少火, 君火, 相火와 이후 醫家로써 王冰의 ‘人火, 龍火’, 孫思邈의 ‘膏火’, 許叔微, 嚴用和의 ‘眞火’, 劉完素의 ‘右腎命門相火’, 張元素의 ‘三焦相火’, 그리고 마지막으로 李東垣의 ‘陰火’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李東垣의 陰火는 그의 설명이 간략하고 서로 모순되는 표현까지 있어 이의 해석에 대해서 많은 論爭과 討論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였고 저자의 주장도 함께 기술 하였다. 비록 朱丹溪의 相火論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연구를 시작 하였지만 역대 火의 이론에 대한 변천사를 일별하여 볼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발전한 明清시대 命門相火學說에 대한 이론적 근원도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內經』에 나온 壯火, 少火와 君火, 相火

火는 본래 五行의 하나로 火行을 의미하며 또한 물질이 燃燒되는 상태를 나타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陽氣를 나타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인체의 生理와 病理에 관련된 내용과 자연계에서 작용하는 불의 기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內經』에서 一身에 작용하는 火에 관하여 언급된 내용은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처음 보인다.

“壯火는 元氣를 衰弱하게 하고 少火는 元氣를 튼튼하게 하며, 壯火는 元氣를 耗損시키고 元氣는 少火에 의해서 補充을 받으며 壯火는 散氣하고 少火는 生氣한다.”²⁾

이 壯火, 少火의 개념은 후에 朱丹溪의 相火論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는 壯火, 少火의 이론을 相火, 相火妄動의 개념으로써 흡수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內經』에서는 一身에 작용하는 불의 기운 외에 自然界에서 작용하는 불의 기운에 관한 언급도 보인다. 이를 君火, 相火라 명명하였는데 『素問·天元紀大論』에서 “君火以明, 相火以位”³⁾ 라 하여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君火라는 것은 밝음을 주장하는데 火의 원천이 되고 뿌리가 되며, 相火라는 것은 君火의 命을 받고 기운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用事를 행한다는 의미이다. 王冰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君火의 정사는 자리를 지키면서 하늘의 命을 받들어 火의 政命을 펴서 행한다. 이름으로 하늘

* 교신저자 : 윤창열.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교 62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yooncy@dju.ac.kr, Tel : 042-280-2601

접수일(2014년 01월23일), 수정일(2014년 02월16일), 게재확정일(2014년 02월17일).

1) 周海平, 申洪硯等主編. 黃帝內經大詞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198.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8. “壯火之氣衰, 少火之氣壯, 壯火食氣, 氣食少火, 壯火散氣, 少火生氣.”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28.

을 받들므로 君火以名이라 한 것이고 相火는 자리를 지키면서 명령을 품부받기 때문에 相火以位라 한 것이다.” 4)

위의 注釋을 보면 王冰은 원문의 君火以明을 君火以名으로 注釋을 달고 있다. 그의 注釋의 핵심 내용은 君火는 天命을 받들어 火의 政令을 행함으로 君火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相火는 재상처럼 君火에게서 명령을 받아 君火를 보필하는 작용을 함으로 相火는 위치를 중요시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相火는 반드시 君火를 뒤따라오는 것으로, 相火는 자신의 작용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마치 재상이 君主의 승을 받들어 행사하는 것처럼 君火에 종속된다. 이를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 하고 있다.

“顯明 즉 춘분의 오른쪽은 君火의 자리이다. 君火의 오른쪽으로 一步를 퇴행하면 相火가 다스린다.” 5)

이에 王冰은 다음과 같이 注를 달았다.

“春分後 60여일까지는.....君火의 자리이다.....相火는 즉, 夏至前後 각30일이다.” 6)

이는 溫暖한 火와 炎熱한 火로 君火와 相火의 특징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素問·天元紀大論』과 『素問·六微旨大論』의 王冰의 注釋에 나타난 君火, 相火의 개념은 君火, 相火의 근본적 차이, 六氣변화의 순서와 규칙, 그리고 기후 특징과 만물의 변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王冰撰. 張登本, 孫理軍主編. 王冰醫學全書·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04. “火之政, 守位而奉天之命, 以宣行火令爾, 以名奉天, 故曰君火以名, 守位稟命, 故云相火以位.”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32. “顯明之右, 君火之位也. 君火之右, 退行一步, 相火治之.”

6) 王冰撰. 張登本, 孫理軍主編. 王冰醫學全書·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19. “自春分後六十日有奇.....君火位也.....相火 則夏至日前後各三十日也.”

위의 내용으로 볼때 『內經』에서는 하나의 火이지만 壯火, 少火처럼 火가 元氣에 感應할 때의 변화를 기준으로 論하기도 하고, 君火, 相火처럼 運氣차원에서 논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醫家들은 경험을 통하여 一身에도 생명, 육체활동을 유지 시켜주는 生理적인 少火가 있고, 勞役과 精神사유 등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亢盛하게 작용하는 病理적인 壯火가 있다고 認識하기 시작하였으며 君火, 相火를 가지고 인체의 生理와 病理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醫家들이 『內經』에 바탕을 두고서 火에 관하여 어떻게 論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Ⅲ. 醫家들의 火論

1) 王冰의 人火, 龍火

王冰은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卷 第二十二·至眞要大論』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저 病이 微少한것은 人火와 같으며....病이 大甚한 것은 龍火와 같다.” 7)

그는 人火는 그 성질이 온화한 것으로 濕으로 굴복시킬 수 있고, 水로써 消滅할 수 있으며, 龍火는 龍雷之火의 준말로 천둥과 번개가 칠 때 나타나는 강한 불을 말하는 것으로 水나 濕으로 折之하거나 攻之하려고 하면 오히려 光焰하는 성질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疾病의 치료방법에 있어서 病이 隱微하고 작은 것은 人火와 같으니 逆之해야하고, 病이 크고 깊은 것은 龍火와 같으니 從之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다⁸⁾. 王冰이 말한 人火, 龍火는 病理적인 상태에서 病의 淺, 深에 따른 세기를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서, 『內經』에서 말한 壯火, 少火와 같이 一身에 작용하고 있는 生理, 病理적인 火와는 무관

7) 王冰撰. 張登本, 孫理軍主編. 王冰醫學全書·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33. “夫病之微少者, 猶人火也....病之大甚者, 猶龍火也.”

8) 王冰撰. 張登本, 孫理軍主編. 王冰醫學全書·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33.

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적으로 『東醫寶鑑·雜病篇·第三卷』에서는 “惟火有二，曰君火人火也，曰相火天火也”⁹⁾라 하였는데 火의 強弱에 대한 개념은 王冰과 같지만 王冰의 내용은 모두 病理적인 火를 대상으로 삼는데 반해 東醫寶鑑의 내용은 生理적인 火를 대상으로 삼아 설명한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다.

2) 孫思邈의 膏火

孫思邈은 『備急千金要方·養性·房中補益第八』에서 “膏火”를 언급하고 있다.

“나이가 70여세가 된 시골 노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며칠 전부터 陽氣가 더욱 성해져서 마누라와 낮에 房事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欲情이다 끝난 사람인데 늙어서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다. 이것은 아주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그대는 기름불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는가? 대저 기름불이 장차 꺼지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어두워지다가 뒤에 갑자기 밝아지고 밝음이 끝나면서 꺼진다. 지금 그대는 나이가 늘그막에 이르러 오랫동안 精을 배출하지 않고 欲情이 끊어져 있었다.....만약 한번 심지를 만들었을 때 한차례 불이 꺼지면 한번 기름을 더 넣으면 된다. 만약 능히 억제를 하지 못하여 欲情에 따라 精을 배설하면 기름불이 꺼지게 된다. 더욱 그 기름을 빼낸다는 것은 깊이 스스로 예방하지 않은 것이 된다.”¹⁰⁾

9) 허 준지음. 이남구원토주식.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876.

10) 孫思邈撰. 張印生, 韓學杰主編. 孫思邈醫學全書·備急千金要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500. “有一野老, 年七十餘, 詣余云 數日來陽氣益盛, 思與家媪晝寢, 春事皆成. 未知垂老有此, 爲善惡也? 余答之曰 是大不祥. 子獨不聞膏火乎? 夫膏火之將竭也, 必先暗而后明, 明止則滅. 今足下年邁桑榆, 久當閉精息欲.....若一度制得, 則一度火滅, 一度增油. 若不能制, 縱情施瀉, 卽是膏火將滅, 更去其油, 可不深自防”

“무릇 精이 적어지면 病이 생기고, 精이 다하게 되면 죽는 것이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삼가지 않을 수가 없다.”¹¹⁾

이것은 등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의 火가 있으니,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老人이 죽기 직전에 情欲이 왕성해 지는 것을 건강이 회복한 것으로 착각하여 밤낮으로 房事하는 것은 아주 불길한 징조이니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精이 중요한 에너지 역할을 한다고 보아 이를 등불의 연료인 기름(膏)에 비유한 것이다. 즉, 情欲이 왕성하고 그로 인해 精을 남발하게 되면 病이 생긴다고 보았고 慾望을 절제하고 精을 갈무리 할 줄 안다면 몸의 氣血이 저절로 생길 것이며 그것이 攝生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膏火의 개념은 후대 醫家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精化爲氣하고 氣는 廣義적으로 火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精은 韓醫學에서 陰에 속하는 물질로 이는 후에 朱丹溪가 相火論에서 말한 “陰虛則病, 陰絕則死”¹²⁾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3) 許叔微의 眞火

北宋의 醫家 許叔微는 『普濟本事方·卷 第二·心小腸脾胃病·二神圓』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온전히 음식을 먹지를 못하여 脾를 補하는 약을 복용케 했는데 모두 효험이 없었다. 내가 이 처방을 내려 도움을 주니, 복용하자 기분 좋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병은 완전히 脾虛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대개 그 원인은 腎氣가 아주 허약하여 眞元이 衰劣하게 되어 스스로 음식을 消化 시킬 수 없는 것이

11) 孫思邈撰. 張印生, 韓學杰主編. 孫思邈醫學全書·備急千金要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500. “凡精少則病, 精盡則死, 不可不思, 不可不慎”

12) 朱丹溪撰. 田思勝等主編. 朱丹溪醫學全書·格致餘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5.

다. 예를 들어 술 안에 米穀이 놓여있는데 아래에 火力이 없다면 비록 종일토록 있어도 米穀은 익지 않는 것과 같으니 어찌 능히 소화시킬 수 있겠는가?” 13)

이것은 밥을 짓기 위해서는 술의 밑에서 불을 지펴야 만이 밥이 익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도 脾胃의 아래에서 불을 지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처음으로 인식한 것으로 이것이 없다면 음식물의 消化가 어렵다는 것이다. 『普濟本事方·卷第六·腎氣圓』에서는 이 불을 眞火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만약 허리의 腎氣가 盛하면, 이것을 眞火라고 하는데, 이것은 脾胃를 데워주고 음식을 消化시킬 수 있게 도와주며 水穀을 나누어 운반하여 二陰으로 나오게 한다. 精氣는 骨髓로 들어가 營衛氣와 합하여 血脈을 돌아다니니 一身을 이롭게 한다.” 14)

그는 허리의 腎氣가 旺盛한 것을 眞火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腎臟의 火로써 飲食을 消化시키고 水穀의 氣運을 全身에 보내주는 기능을 주로 한다고 하였다. 그가 말한 眞火는 우리 몸의 生理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火로서 이것이 盛해야 우리 몸에 이롭고 이것이 不足해지면 음식물을 消化시키지 못하는 疾患이 생긴다고 하였다. “腎氣怯弱, 眞元衰劣, 自是不能消化飲食” 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즉 眞火는 腎의 자리에서 氣가 盛하고 그 성질인 眞元의 氣運이 充滿한 상태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腎氣이며 眞元이라는 것이다.

許叔微의 眞火는 여러 측면에서 한의학 이론을

발전시키고,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가 腎을 뎀나무와 같고 脾는 술과 같아서 腎火가 능히 脾土를 생한다는 이론은 과거 心火가 生土하여 消化를 시킨다는 이론을 腎火生脾土한다는 이론으로 확대시켜 발전시킨 것이다.

둘째 脾와 腎사이에는 서로 資生의 관계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脾의 健運과 消化는 腎陽의 溫煦作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으로써 후세에 이를 脾陽은 根於腎陽한다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脾가 穀氣를 생하여 穀氣가 완전해지면 다시 精氣를 생하고 精氣가 충실해지면 腎臟이 튼튼해진다는 즉, 後天之精이 先天之精을 끊임없이 培育, 充養한다는 이론의 뿌리가 된다.

넷째 그의 眞火에 대한 이론은 후세의 腎과 命門學說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4) 嚴用和의 眞陽, 坎火

南宋의 嚴用和는 許叔微의 영향을 받아 眞火가 弱해지게 되면 脾土를 蒸할 수 없어 病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는 『濟生方·五臟門·脾胃虛實論治·補眞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갈 때 攝養을 잘하지 않고 房勞過度하게 되면, 眞陽이 衰하게 되고 坎火가 不溫하게 되어 위로 脾土를 데워줄 수가 없다. 이에 조화된 기운이 퍼지지 않게 되면 中焦가 運化할 수 없게 되니 이에 이르면 음식을 넘길 수가 없게 되어 胸膈이 痞塞하게 되거나 혹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복부가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혹은 먹어도 消化를 시킬 수가 없게 된다. 이에 大腸에서는 泄瀉를 하게 되니 이것은 모두 眞火가 衰虛하여 脾土를 데워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15)

13) 許叔微撰, 劉景超, 李具雙主編. 許叔微醫學全書·普濟本事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00. “有人全不進食, 服補脾藥皆不驗, 予授此方, 服之欣然能食, 此病不可全作脾虛. 蓋因腎氣怯弱, 眞元衰劣, 自是不能消化飲食, 譬如鼎釜之中, 置諸米谷, 下無火力, 雖終日米不熟, 其何能化?”

14) 許叔微撰, 劉景超, 李具雙主編. 許叔微醫學全書·普濟本事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30. “若腰腎氣盛, 是爲眞火, 上蒸脾胃, 變化飲食, 分流水穀, 從二陰出, 精氣入骨髓, 合營衛行血脈, 營養一身.”

15) 嚴用和撰, 王道瑞, 申好眞主編. 嚴用和醫學全書·濟生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9. “人之有生, 不善攝養, 房勞過度, 眞陽衰虛, 坎火不溫, 不能上蒸脾土, 沖和失布, 中州不運, 是致飲食不進, 胸膈痞塞, 或不食而脹滿, 或已食而不消, 大腑瀉泄, 此皆眞火衰虛, 不能蒸蘊脾土而然.”

이것은 中焦가 주관하는 生理적인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下焦의 火가 필요한데 이것이 眞火라고 한 것이다. 그는 또 여기서 坎火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坎火는 水中之火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腎臟의 火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즉 腎臟의 기운 중에 溫脾土를 해주는 火가 있으니 그것을 眞陽, 坎火, 眞火라고 표현하였다. 앞서 許叔微는 腎氣가 眞火라고 하면서 腎氣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病因에 대하여서도 腎虛라고만 표현하였던 반면에, 嚴用和는 眞陽이 眞火, 坎火라고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房勞過度에 의한 病因을 설명함으로써 許叔微의 이론 체계를 더욱 구체화 시켰다고 할 수 있다.

許叔微와 嚴用和 이 두 醫家의 이러한 견해는 後世에 補脾不如補腎이라는 이론을 탄생시켰으며 明代의 命門學說의 發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5) 劉完素의 右腎 命門相火

劉完素는 風寒暑濕燥火의 六氣가 모두 火로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 主火論者이고 이에 따라 寒涼한 藥으로 病을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한 寒涼派醫家이다. 그는 病機 및 病變을 火熱위주로 설명하였고, 風濕燥寒의 氣가 病理변화 중에 化火生熱 할 수 있으며 火熱도 風濕燥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된다 하였다¹⁶⁾. 그는 특히 手少陽相火의 熱은 心包絡과 三焦의 氣라고 밝히면서 相火를 一身의 臟腑와 연결시켰다. 그 이전까지의 相火는 『內經』에 나온 “君火以明, 相火之位”에 나온 내용 이외에는 특별히 研究된 바가 없었으나 南宋과 金元시대에 들어와 사람들은 人體내에서 작용하는 相火에 관하여 研究하기 시작하였다.

命門이 처음 언급된 것은 『素問·陰陽離合論』과 『靈樞·根結』, 『靈樞·衛氣』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內經』에 나온 命門은 눈에 있는 穴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後世의 命門學說에서 말하는 命門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後世 命門說의 근원은 『難經』이다.

16) 洪元植, 尹暢烈, 金容辰編著. 韓中醫學史概說. 주민출판사. 2007. p.281.

“腎臟은 두 개가 있으나, 모두 腎臟인 것은 아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을 腎이라 하고, 右측에 있는 것은 命門이라 부른다. 命門은 精神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며, 元氣가 매어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男子는 藏精하고, 女子는 繫胞하는 것이니 腎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⁷⁾

이것은 두 개의 腎臟 가운데 왼쪽은 腎이고 오른쪽은 命門이라 하여 이곳이 精神이 머무는 곳이며 原氣가 나오는 곳이며, 男子는 精을 藏하고 女子는 胞와 관련이 있다 하여 命門의 生理적인 기능을 언급하였다. 『素問·刺禁論』에서는 命門을 “七節之傍, 中有小心”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楊上善은 다음과 같이 注釋하고 있다.

“사람의 脊骨은 二十一마디로 되어있는데 아래로부터 세어서 일곱 번째 마디 양측에서 左측에 있는 것을 腎臟이라 하고, 右측에 있는 것을 命門이라고 한다. 命門은 小心이다.”¹⁸⁾

그는 七節之傍을 제 2~3번 요추 옆으로 해석하고 小心을 命門이라 했는데 이 學說은 後世 命門學說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劉完素는 『內經』과 『難經』, 楊上善의 理論을 받아 들였지만 『難經』에 나온 命門이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한다는 것에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素問病機宜保命集·病機論第七』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左腎은 水에 屬하니, 男子는 精을 貯藏하며, 女子는 胞가 매어있다. 右腎은 火에 屬하며, 三焦가 運行하니, 興衰의 道가 이에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七節之傍에 小心이 있으니 이것을 命

17) 凌耀星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67-68. “腎兩者, 非皆腎也.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 命門者, 諸精神之所舍, 原氣之所繫也. 故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故知腎有一也”

18) 劉完素撰.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素問玄機原病式.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00. “人之脊骨有二十一節, 從下第七節之傍, 左者爲腎, 右者爲命門, 命門者, 小心也.”

門相火라고 말하는 것이다.” 19)

이는 『難經』에서 命門이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左腎에서 주관하고, 右腎 命門은 心臟을 감싸는 心包絡과 表裏관계인 三焦의 氣運이 운행하는 곳으로 보았다. 命門이라는 것은 君火의 命을 받드는 자리로서 이것은 즉 『內經』에 나오는 相火之位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니, 右腎이 곧 命門이며 相火라고 주장하였다.

위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최초로 命門과 相火를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明, 淸시대에 이르게 되면 命門學說이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는 相火를 腎命門과 연결시키면서 점차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命門과 相火를 연결시킨 최초의 인물이 劉完素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劉完素를 命門相火學說의 창시자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右腎이 命門이라 한 것은 『難經』에서 시작되었지만 右腎이 命門이며 火, 특히 相火를 주관한다고 언급한 최초의 인물은 劉完素인 것이다. 姜春華도 命門이 相火와 結合된 것이 命門學說이 발전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²⁰⁾.

6) 張元素 三焦相火

張元素는 그의 저서 『臟腑標本藥式·命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命門)은 相火의 근원이 된다. 天地기운(은뭍의 기운)이 시작하는 곳이고 精을 간직하고 있고 血을 생한다. (命門의)기운이 내려오면 붕루가 되고 올라가면 正氣가 된다. 三焦의 元氣를 주관한다.” 21)

그는 『脈訣』에 나온 “右尺三焦, 命門脈之所出”을 근거로 劉完素와 마찬가지로 命門을 相火의 根源이 되는 곳으로 보아 精을 貯藏하고 血을 생한다고 하는 命門의 生理작용을 기술하였다. 또 『臟腑標本藥式·三焦』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三焦는)相火가 작용하는 곳이다. 命門의 元氣를 나누어 펴고 升降出入을 주관해서 天地(은뭍)의 사이를 游行하여 五臟六腑, 榮衛經絡, 內外上下左右의 氣를 총괄해서 거느리니 中淸之腑라고 부른다. 上焦는 받아들이는 것을 주관하고 中焦는 消化를 주관하고 下焦는 내보내는 것을 주관한다.” 22)

張元素도 命門과 相火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劉完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王好古도 湯液本草에서 附子의 藥性を 말할 때 “氣熱, 味大辛, 純陽.....入手少陽經三焦命門之劑”²³⁾라 하고, 또 菴蓉條에 말할길 “命門相火不足 以此補之”²⁴⁾라 한 것을 보면 金나라의 학자들은 命門이 相火를 主한다는 說을 共知하고 있었던 듯하다.

7) 李東垣의 陰火

李東垣은 『內經』과 『難經』의 理論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脾胃의 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脾胃論·脾胃虛實傳變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元氣가 充足하다는 것은 모두 脾胃의 氣가 傷한바가 없는 것에서 유래하니, 後天之氣는 능히 元氣를 滋養 할 수 있다.” 25)

19) 劉完素撰.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22. “左腎屬水,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右腎屬火, 游行三焦, 興衰之道由于此. 故七節之傍, 中有小心, 是言命門相火也.”
20) 羅昌洙 外19인教授共編著. 한의학총강. 서울. 의성당. 2010. p.273.
21) 張元素撰. 鄭洪新主編. 張元素醫學全書·醫學啓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9. “爲相火之原, 天地之始, 藏精生血, 降則爲瀉, 升則位鉛, 主三焦元氣.”

22) 張元素撰. 鄭洪新主編. 張元素醫學全書·醫學啓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9. “爲相火之用, 分布命門元氣, 主升降出入, 游行天地之間, 總領五臟六腑 營衛經絡 內外上下 左右之氣, 號中淸之腑. 上主納, 中主化, 下主出.”
23) 王好古撰. 盛增秀主編. 王好古醫學全書·湯液本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27.
24) 王好古撰. 盛增秀主編. 王好古醫學全書·湯液本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40.
25) 李東垣撰. 張年順等主編. 李東垣醫學全書·脾胃論. 北京. 中

즉, 一身에는 先天之氣와 後天之氣가 있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元氣는 先天之氣로서 後天之氣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며 자라난다고 주장 하였다. 또 그는 病이 생기는 원인 역시 이 脾胃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脾胃의 氣가 損傷받게 되면, 元氣 역시 補充 받을 수 없으니 모든 病은 이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기게 된다.” 26)

이렇듯 그는 脾胃의 生理 작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하였는데 어떠한 原因으로 이 脾胃가 損傷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그는 陰火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病理적인 부분을 설명하였다. 陰火는 李東垣이 처음 언급한 것으로 그 의미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먼저 李東垣이 『脾胃論·飲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에서 陰火가 생기는 原因에 대하여 論한 것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飲食에 節度を 잃고, 寒溫이 합당하지 않으면 脾胃가 損傷을 받고, 喜怒憂恐과 勞役過度 하게 되면 元氣가 損傷을 받게 된다. 脾胃의 氣가 衰하여 元氣가 不足해 지면 心火가 홀로 盛하게 되는데 心火는 陰火이다. 下焦에서 일어나 心에 매어 있으며, 心이 命을 주하지 못하게 되면 相火가 그것을 대신하게 된다. 相火는 下焦包絡의 火로서 元氣의 賊이다. 火와 元氣는 兩立하지 않으니, 하나가 勝하면 하나가 負하게 된다. 脾胃의 氣가 虛하여 아래의 腎으로 흐르면 陰火가 토의 자리를 올라타게 된다.” 27)

이 문장으로 인하여 역대 醫家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났다. 그 이유로는 人體의 生理, 病理적인 機轉으로 발생하는 陰火에 관한 李東垣의 설명이 부족하고 또 治法에 관해서도 一貫性を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 陰火에 관한 醫家들의 주장

『各家學說』에서는 陰火에 대해 10가지로 정의하고 있고²⁸⁾ 최근 중국학자들 또한 陰火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을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劉放民은 飲食勞倦의 조절을 잃음으로 인하여 脾胃가 傷하게 되는데 이에 脾胃에 있는 元氣가 下陷하게 되어 肝腎의 相火가 자리를 떠나 脾胃에 올라타면 이것이 心包를 괴롭히게 되니 이것을 ‘包絡之火’ 라고 하였다²⁹⁾.

② 張星平은 “其系繫于心.....下焦包絡之火, 元氣之賊也”의 문장에 근거 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包絡”중의 “包”자는 “胞”자의 古字로써 胞宮은 즉 命門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命門包絡은 下焦에 위치하여 下焦包絡이라고 하고 이것은 火가 자리를 떠나 위로 오를 때 생기는 邪火이니 李東垣이 말한 ‘陰火上衝’은 하나의 病理적인 相火의 개념이라고 하였다³⁰⁾.

③ 岳妍은 임상적으로 응용 했을 때 비교적 간단하게 이 陰火에 대하여서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補中益氣湯은 甘溫한 藥으로 구성되어 健脾運脾하며 升藥과 動藥을 주로 삼는데 그 목적은 脾氣溫盛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氣虛發熱의 機轉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 脾氣虛弱하여, 水穀의 營衛之氣를 운반할 수 없게 되어, 營衛之氣가 안에서 막히게 되면 여기에서 火가 생기니 이것이 바로 李東垣이 말

中國醫藥出版社. 2006. p.32. “元氣之充足, 皆由脾胃之氣無所傷, 而後能滋養元氣.”

26) 李東垣撰. 張年順等主編. 李東垣醫學全書·脾胃論.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6. p.32. “脾胃之氣既傷, 而元氣亦不能充, 而諸病之所由生也.”

27) 李東垣撰. 張年順等主編. 李東垣醫學全書·脾胃論.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6. pp.44-45. “苟飲食不節, 寒溫不適則脾胃乃傷, 喜怒憂恐, 勞役過度而損耗元氣. 脾胃氣衰, 元氣不足, 而心火獨盛, 心火者, 陰火也. 起于下焦, 其系繫于心, 心不主令, 相火代之. 相火, 下焦包絡之火, 元氣之賊也. 火與元氣不兩立, 一勝則一負. 脾胃氣虛, 則下流于腎, 陰火

得以乘其土位.”

28) 陳大舜. 曾勇. 黃政德主編. 맹용재 외 옮김.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 p.169.

29) 劉放民. 《脾胃論》陰火理論之我見. 實用中醫藥雜誌. 1994. 10卷(6). p.38.

30) 張星平, 肖瑩. 李泉 “陰火說”探微. 上海中醫藥雜誌. 2003. 37卷(1). pp.46-48.

한 陰火라고 하였다³¹⁾.

④ 朱文浩는 “脾胃氣衰，元氣不足，而心火獨盛，心火者，陰火也”라는 구절을 근거로 陰火의 病機에 대하여서 脾胃가 虛弱해 지면 元氣가 不足해 지고 脾胃의 氣가 아래로 흘러 기운을 올릴 힘이 없어 腎水가 心에 오를 수가 없으니 心火가 제어가 안 되므로 홀로 위로 오르는 것이니 陰火는 즉 心火라고 하였다³²⁾.

⑤ 田雨河는 『內經』의 “壯火之氣衰，火之氣壯，壯火食氣，氣食少火，壯火散氣，少火生氣”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사람의 陽氣는 하늘의 太陽과 같이 중요한 것으로 陽氣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살수가 없으니 과도한 陽氣는 元氣는 損傷시키고 正常적인 陽氣는 元氣를 왕성하게 한다. 元氣는 陽氣에 의지하고 있으니 元氣의 賊이라고 표현한 陰火는 바로 壯火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陰火는 實質적으로 ‘內臟之火’를 말하고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³³⁾.

(2) 陰火는 ‘陰的인 火’와 病理的인 火이다.

이상으로 보면 여러 醫家들이 陰火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 하였지만 공통적으로는 李東垣이 주장한 脾胃의 元氣가 損傷되어 여러 가지 火가 발생한다는 것에는 별다른 의의를 두지 않았다. 李東垣이 陰火라고 지칭하면서 그 生成機轉과 病機적인 부분, 治療法에 대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호한 해석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陰火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필자의 생각은 陰火를 한 가지 의미로 局限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一身안에 火로 인하여 病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陰’字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이다. 만일 李東垣이 陰火를 相火나, 心火 등으로 생각하였다면 굳이 이제껏 사용하지 않

았던 용어를 사용하면서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 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陰’字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字典에 나온 의미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고자 한다.

‘陰’字는 『漢字辭典』에 의하면 응달, 우주의 근원이 되는 두 원소, 습기, 깊숙하다, 잠시다, 흐려지다, 그늘, 몰래 등 26가지의 뜻이 있다. 쓰이는 용도를 살펴보면 陰姦(숨어서 하는 나쁜 짓), 陰譴(남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벌), 陰計(은밀한 계획), 陰功(숨은 공덕), 陰伎(음험하고 포악함), 陰密(숨어서 나타내지 아니함), 陰祕(성질이 음험함), 陰邪(남 몰래 사악한 짓을 함), 陰賊(은밀히 나쁜 짓을 함) 등이 있다³⁴⁾. 대체적으로 은밀한 의미를 나타내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李東垣이 飲食勞倦과 七情의 변화로 脾胃가 損傷받아 생기는 것을 陰火라고 한 것은 이전 醫家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몸 안에 숨겨져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火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心火가 熾盛하게 되면 陰的인 火(부정적인 火)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때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心火를 陰火라고 표현하였으며, 그 心火가 기능을 잃게 되면 相火가 대신 그 자리를 넘어 오게 되는데 이 또한 中焦의 氣運이 원활하게 소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元氣의 生成에 방해가 되므로 이때의 相火를 元氣의 賊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李東垣이 주장한 陰火를 어떠한 특정적인 부분으로 局限할 것이 아니라 病理적인 症狀을 나타내면서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心火가 되기도 하고 相火가 되기도 하며 壯火, 下焦包絡之火 등을 모두 포함하는 廣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陰的인 火’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生理적인 火를 ‘陽火’, 病理적인 火를 ‘陰火’라고 볼 수 있다.

IV. 결 론

서론에서 필자는 朱丹溪의 相火論이 나오기 까지

31) 岳妍, 孟曉輝, 高廣龍, 邱洪蕾. 再論氣虛發熱及陰火. 中醫藥信息. 2013. 30卷(3). pp.12-13.

32) 朱文浩. 李杲“陰火”淺說. 減肅中醫. 2005. 18卷(1). pp.9-10.

33) 田雨河. 李東垣陰火論之實質是內藏之火. 河北中醫. 2004. 26卷(11). pp.867-868.

34) 李家源, 權五椽, 任昌淳監修. 東亞漢韓大辭典. 東亞出版社. 1982. pp.1978-1980.

醫家들의 火에 대해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각각의 醫家들이 주장한 火이론들이 同名異意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異名同意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많고, 『內經』에 나온 火와 朱丹溪 이전 醫家들이 주장한 火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眞意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朱丹溪의 相火論 이전까지의 그 전모를 파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內經』에서의 壯火는 기운이 亢盛한 病理적인 火로 元氣를 耗損시키고 散氣하여 氣衰하게 하고 少火는 元氣를 생산하여 氣壯하게 한다. 또 運氣學적으로 溫暖한 君火와 炎熱한 相火를 언급하여 후대의 君火, 相火學說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王冰은 『素問』의 注釋에서 病의 微小함을 비유한 人火와 病의 深大함을 의미하는 龍火를 처음 제기 하였다. 그는 病理적으로 病의 淺, 深에 대해서만 이 용어를 썼지만 후대에서는 이에 국한하지 않고 人火, 天火등 生理적인 부분까지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3. 孫思邈은 膏火를 제기하여 精이 氣를 化生하고 情欲을 발동시키는 근원이 됨을 제시하면서 精을 잘 갈무리 하는 것이 攝生을 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膏火는 후세 의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病因에 있어서 주단계의 “陰虛則病, 陰絕則死”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4. 許叔微의 眞火는 과거 心火가 生土 하여 消化를 시킨다는 이론을 腎火生脾土 한다는 이론으로 확대시켜 발전시켰다. 이는 先天之精이 後天之精을 培育, 充養한다는 이론의 뿌리가 되고 후세에 脾陽은 根於腎陽 한다는 이론과 腎과 命門學說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5. 嚴用和는 許叔微와 마찬가지로 眞火가 溫脾土 한다는 이론을 주장하면서 이 眞火를 眞陽, 坎火라

고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病因으로 房勞過度하여 腎虛함으로써 나타나는 임상 증상들을 나열하면서 許叔微의 眞火論을 더욱 구체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6. 劉完素는 右腎命門相火說을 주장하였다. 相火는 『內經』에서는 六氣적인 개념으로 기술하고 있고, 命門은 『內經』에 처음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穴名을 지칭 하는 것으로 『內經』에 나온 相火와 命門은 몸에 작용하는 기운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劉完素는 『難經』에 나온 右腎命門說과 『內經』에 나온 “君火, 相火”, “七節之旁, 中有小心”, 楊上善이 말한 “命門者, 小心也”의 이론을 흡수하여 右腎이 곧 命門이며 相火를 주관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로서 후세 命門學說이 발전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7. 張元素는 命門에 대하여 精을 貯藏하고 血을 생하게 한다는 命門의 生理작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三焦를 中清之腑라고 부르며 각각의 기능에 대해 “上主納, 中主化, 下主出”이라 밝혔다. 그는 이 命門과 三焦에 대하여 劉完素와 마찬가지로 命門이 相火의 근원이 되며 三焦는 相火가 작용하는 곳이라고 주장하였다.

8. 李東垣은 元氣는 先天之氣로써 後天之氣로부터 영양을 받으며 자라나니 만약 이 後天之氣인 脾胃의 기능이 損傷을 받게 되면 모든 病은 이로부터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脾胃가 損傷받는 原因으로 飲食과 精神사유, 過勞 등을 들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몸의 病理적인 증상을 陰火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陰火에 대하여서 李東垣은 자신의 저서 『脾胃論』에서 인체에 작용하는 機轉에 관한 설명이 모호하고, 治法에 관하여서도 一貫性を 갖고 있지 않아 후세 醫家들로 하여금 많은 論爭을 일으키게 하였다. 『各家學說』에서는 陰火에 대해 10가지로 정의하고 있고, 최근 중국학자 劉放民, 張星平, 岳妍, 朱文浩, 田雨河등은 陰火의 病理機轉을 통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주장하였다. 이에 필자가 陰火에

대한 諸家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내린 결론은 生理적인 火는 陽火이고 陰火는 病理적인 상태를 나타내며 廣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陰의인 火’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논문>

1. 劉放民. 《脾胃論》陰火理論之我見. 實用中醫藥雜誌. 1994. 10卷(6). p.38.
2. 張星平, 肖瑩. 李杲“陰火說”探微. 上海中醫藥雜誌. 2003. 37卷(1). pp.46-48.
3. 岳妍, 孟曉輝, 高廣龍, 邱洪蕾. 再論氣虛發熱及陰火. 中醫藥信息. 2013. 30卷(3). pp.12-13.
4. 朱文浩. 李杲“陰火”淺說. 減肅中醫. 2005. 18卷(1). pp.9-10.
5. 田雨河. 李東垣陰火論之實質是內藏之火. 河北中醫. 2004. 26卷(11). pp.867-868.

<단행본>

1. 周海平, 申洪硯等主編. 黃帝內經大詞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198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8, 128, 132.
3. 王冰撰. 張登本, 孫理軍主編. 王冰醫學全書·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04, 319, 433.
4. 허 준지음. 이남구현토주석.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2011. p.876.
5. 孫思邈撰. 張印生, 韓學杰主編. 孫思邈醫學全書·備急千金要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500.
6. 許叔微撰. 劉景超, 李具雙主編. 許叔微醫學全書·普濟本事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00, 130.
7. 孫思邈撰. 張印生, 韓學杰主編. 孫思邈醫學全書·備急千金要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5.
8. 嚴用和撰. 王道瑞, 申好貞主編. 嚴用和醫學全書·濟生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9.

9. 洪元植, 尹暢烈. 金容辰編著. 韓中醫學史概說. 주민출판사. 2007. p.281.
10. 凌耀星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67-68.
11. 劉完素撰.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素問玄機原病式.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00.
12. 劉完素撰. 宋乃光主編. 劉完素醫學全書·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22.
13. 羅昌洙 外19인 教授共編著. 한의학총강. 서울. 의성당. 2010. p.273.
14. 張元素撰. 鄭洪新主編. 張元素醫學全書·醫學啓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9.
15. 王好古撰. 盛增秀主編. 王好古醫學全書·湯液本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27, 40.
16. 李東垣撰. 張年順等主編. 李東垣醫學全書·脾胃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2, pp.44-45.
17. 陳大舜, 曾勇, 黃政德主編. 맹옹재 外9인 옮김.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169.
18. 李家源, 權五惇, 任昌淳監修.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東亞出版社. 1982. pp.1978-1980.